

## 메시지 2

### 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함

성경: 빌 2:3-9, 1:19-21상

#### I. 우리가 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,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품어야 한다 — 빌 2:5.

- A.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해야 하며, 우리 안에 ‘이 생각을 품기 위해’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한다 — 빌 2:3-5.
1.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‘이 생각’이란 3절에 있는 ‘여기는 것’과 4절에 있는 ‘귀하게 여기는 것’을 가리킨다.
  2. 생각을 낮추는 것(빌 2:3)은 이기적인 야심과 헛된 영광 둘 다와 대조된다.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타고난 겸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허이다(8절).
  3.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을 때, 이러한 생각, 이러한 사고(思考)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— 빌 2:7-8.
- B. ‘이 생각’을 가지려면,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, 곧 그분의 부드러운 내적 느낌과 생각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 — 빌 1:8.
- C.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생각이 살아 있는 어떤 것임을 의미한다. 사실상 그리스도의 생각은 그리스도 자신이다.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분의 생각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— 빌 2:5, 비교 고전 2:16 각주 1.

#### II.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본으로 알아야 한다 — 빌 2:5-9.

- A.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한다. 우리는 이 본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게 해야 한다.
- B.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으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하나님-사람 구주이다 — 빌 2:6-9.
1. 주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,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,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셨다.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비우시고, 자신이 소유하신 것 곧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으셨다 — 빌 2:6-7상.
    - a. 주님은 육체가 되실 때에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바꾸지 않으셨다.
    - b. 그분은 다만 외적인 표현을 하나님의 모습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바꾸셨다.
  2. 주님은 ‘사람들과 같은 모양’이 되셨다 — 빌 2:7하-8상.
    - a. ‘하나님의 모습’은 그리스도의 신격의 내적인 실재를 의미하며, ‘사람들과 같은 모양’은 그분의 인성의 외적인 겉모양을 가리킨다 — 빌 2:6-7.
    - b. 그분은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,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내적으로 신격의 실재를 가지셨다 — 요 1:1, 14, 18, 3:16, 롬 8:3.
    - c. 그리스도는 인성의 상태 안으로 들어오셨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다 — 빌 2:8상.
  3. 그리스도는 순종하시어 죽으심으로써,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다 — 빌 2:8하.
    - a. 자신을 낮추신 것은 자신을 비우신 것보다 더 전진된 단계였다.
    - b.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을 나타낸다 — 빌 2:7-8.
    - c.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낮추신 것의 절정이었다.

4. 아들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의 대표로서 기꺼이 자신을 비우심으로 창조된 사람이 되었다 — 빌 2:6-8.
  - a. 주 예수님은 복종의 길에 죽기까지 그분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— 사 50:7, 눅 9:51, 막 10:31-34.
  - b. 주님은 ‘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’ — 히 5:8.
    - (1)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한다고 정하셨고, 그리스도는 순종하셨다 — 빌 2:8.
    - (2)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순종을 배우셨다.
  - c. 온 일생 동안 복종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종의 생명을 주셨다. 믿는 이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순종의 본으로 취한 결과이다 — 빌 2:8, 골 3:4.
5. 주님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셨지만,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고, 그분께 ‘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’을 주셨다 — 빌 2:9.

### III.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는,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— 빌 2:3-8.

- A.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분이실 뿐 아니라, 주관적이며 체험적인 분이시다. 본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본이신 분께서 지금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— 빌 2:5, 12-13.
- B. 우리의 생활을 위한 내적인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비록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의 가장 높은 표준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— 빌 2:3-6.
- C.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의 방면, 특히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신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살 필요가 있다 — 빌 1:20-21상, 2:6.
  1. 우리 안에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생명이 있다.
  2. 이 생명은 결코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며, 언제나 기꺼이 지위와 직함을 내려놓는다 — 빌 2:3-6.
- D. 우리는 우리의 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며, 이 본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다 — 고전 1:23상, 2:2, 갈 2:20, 3:1, 6:14.
  1.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여러 단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 완전히 살아 나타난 것의 여러 면들이다.
  2.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살아 나타난 것이었다 — 빌 2:8.
  3. 그리스도를 살 때,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의 본이신 그분을 산다 — 빌 1:21상, 고전 2:2.
  4.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부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— 빌 3:10상, 엡 1:19-22.
  5.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다.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때마다,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— 빌 3:10-11.
  6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 생활의 본으로 삼을 때,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높아지신다 — 빌 2:5, 1:19-21상.